

신규 원전 백지화...후속조치 없어 '답답'

정부, 매입 부지 활용방안 검토 길어져 관련 지자체 '발 동동'

정부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울진 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삼척 또는 영덕 예정인 대진원전 2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계획이 백지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경북 울진과 영덕에 원전 건설 부지를 매입했고, 정부는 울진과 영덕, 삼척을 전원개발사업(원전 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매입한 부지의 활용방안, 고시 해제 등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한수원은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 신한울 1·2호기 옆에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신한울 1·2호기 건설 과정에서 토지를 일괄 매입해 신한울 3·4호기 부지 매입비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종합설계역비 등 2703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원전의 경우 정부는 2011년 건설 예정지인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리 일대 324만6657㎡를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이듬해 고시했다. 한수원은 2016년 7~8월 매입공고를 거쳐 면적기준 18%인 58만7295㎡를 사들였다. 한수원에 따르면 천지원전 부지 매입비로 541억원이 소요됐다.

한수원은 삼척 또는 영덕에 건설 예정이던 대진원전의 부지 매입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2012년 9월 삼척시 근덕면 남남리, 동막리 일대 317만8292㎡를 원전 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했고, 이에 따라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영덕과 삼척 부지에 관한 계획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한울 3·4호기가 지어질 예정이던 울진 부지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수원이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후속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관련 지자체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등 대체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사

업과 연계하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는 영덕군의 요구사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덕군 관계자는 "영덕군이 백지화된 천지원전 부지의 활용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체 활용방안이나 고시 해제 후속조치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답을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부지는 신한울 1·2호기 부지와 함께 발전 일괄 지정돼 신한울 3·4호기 부지만 별도로 고시 해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전 관련 시설 건설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지정 해제는 한수원이 먼저 신청해야 하는 사안으로, 한수원이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지마다 상황이 다른데, 신한울 3·4호기 부지의 경우 부대시설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 등이 논의되고 있고, 부지를 매입한 천지원전은 고시 해제 이후 부지활용 방안이 나와야만 해제가 가능하며, 대진원전 부지는 해제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zjh@

6월에 '국내 1호 복합에너지스테이션' 문 연다

현대오일뱅크, 차량용 휘발유·경유·LPG·수소·전기 한 곳서 판매

현대오일뱅크(대표이사 문종백)가 수소, 전기 등 대체 연료를 포함해 휘발유, 경유, LPG 등 전통 연료까지 다양한 차량용 연료를 한곳에서 채울 수 있는 국내 1호 복합에너지스테이션을 오는 6월 오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에 위치한 총 5000㎡ 부지의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 사이 유휴 공간에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 중이고, 전기 충전기 설치를 위한 협의도 마무리 단계다.

지금까지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와 LPG, LPG와 수소를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차량용 연료 전 품종을 한곳에서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오일뱅크의 복합에너지스테이션이 문을 열면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수소차,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보급도 활기를 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현대오일뱅크가 6월에 오픈 예정인 복합에너지스테이션 조감도.

국내에 전기차 35만 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밝힌 바 있다.

울산광역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충전 인프라 확충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옥동 등에 2개의 수소 충전소가 영업 중이고 올해 현대오일뱅크 복합에너지스테이션을 포함해 3개 수소 충전소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 울

해까지 완공되는 전국 19개 수소 충전소 중 5개를 울산이 유치하게 된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전국 거점 도시 중심으로 수요와 경제성을 고려해 복합에너지스테이션 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자동차업계 등과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석 기자 aza76@

원자력연료, 자체 개발 '회귀분석 교정법' 국제표준 확정

전 세계 관련연구·산업 활용 전망

한전원자력연료가 자체 개발한 '회귀분석 교정법'이 국제표준으로 확정됐다.

한전원자력연료(사장 정상봉)는 자체 개발한 '회귀분석 교정법'이 국제표준화 기구(ISO) 국제표준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회귀분석 교정법은 다수의 표준을 사용해 장비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한전원자력연료는 통계학에 근거한 오차평가이론을 적용시켜 신뢰도 높은 회귀분석 교정법을 개발, 지난 2014년 ISO에 신규과제(프로젝트 리더 강필상 부장)로 제안했다. 지금까지의 교정 방법이 교정 오차를 평가하기가 어렵고 분석 결과에 대한 오차 범위를 정확하게 알기 곤란한 점을 개선했다.

이후 ISO 위원회의 기술검토 및 회원국 질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말 국제표준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표준 제정 과정에

서 기술표준원, 대한전기협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 교정법은 향후 원자력 산업은 물론 전 세계 다양한 연구 및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전원자력연료는 지난 2012년 자체 개발해 제안한 가돌리늄 소

결체에 포함된 가돌리늄과 우라늄의 성분비를 분석하는 핵심기술인 '가돌리니아 함량측정법'이 국제표준으로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상봉 사장은 "이번 회귀분석 교정법이 국제표준으로 확정된 것은 국가 교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우리가 만든 표준이 다양한 분야에서 유익하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회귀분석 교정법 연구모습.

부산시 62개 공공기관 온실가스 1만4352톤 감축

3년 앞당겨 목표치 달성

부산시는 지난해 6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사업을 추진해 전체 1만4352톤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기준 배출량(4만6995톤/년) 대비 30.5퍼센트를 감축한 것으로 부산시 자체 감축 목표량 1만1274톤 기준 27.3퍼센트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2011년도부터 전국 공공기관 8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돼 왔다. 연도별로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및 차량의 에너지 사용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기준 배출량의 30퍼센트 이상까지 감축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보자는 취지인데

부산시는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30% 감축을 3년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지난해 부산시의 목표관리 성과를 보면 ▲건축물과 차량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7834톤 ▲태양광 설치, 지열활용, 전기차 보급 등 외부 감축요인 발굴로 1822톤 ▲단독주택, 아파트, 학교 등에서 4696톤 등을 감축한 결과다. 이는 2016년에 비해 약 8404톤을 더 감축한 수치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해 왔다. 쿨루프 사업,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등으로 온실가스 1만1948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재현 기자 mahler@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시민참관단 모집

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시민참관단을 모집한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장재훈)이 신고리 5·6호기의 투명한 건설을 위한 시민참관단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한수원은 지난해 신고리 5·6호기를 국민과 함께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수원은 12일부터 21일까지 홈페이지(www.khnp.co.kr)를 통해 참관단 30명을 공개모집하고, 10명을 추가해 모두 40명의 시민참관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조재학 기자



품질 최고 가격경쟁력 1등 (전국 최저가)



일체형 PANEL

A.C.B 반

조달청, 포스코, 포스코 건설 한국전력, 중부발전 등에 등록된 협력업체입니다. 품질 1등, 가격 1등으로 귀사의 큰 힘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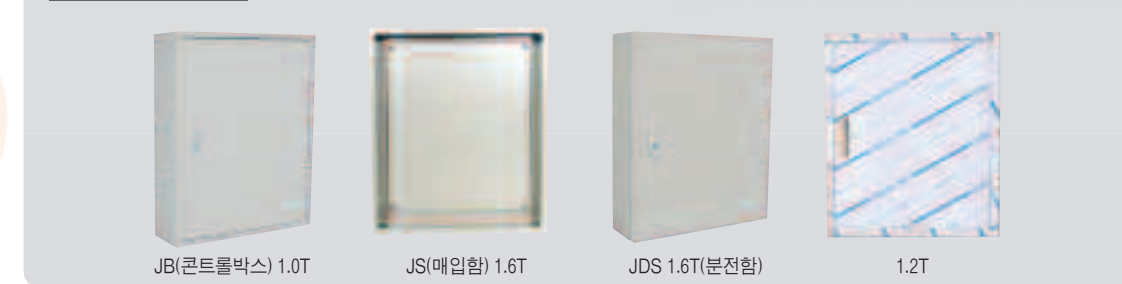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주요생산품목

수-배전반 전문생산 / 일체형 특별고압 수전설비 / MCC반 / 각종 기성함

본전반부			
No.3 Model : 5060-2 BCK 규격 W500 × H600 × D150 개수 4P 배전(MCCB) SB-104Ca / 50A (17H) 분기차단(MCCB) SK-53 / 30A (27H) 분기차단(ELB) SOH-32 / 20A (14H)	No.7 Model : 5060-6 BCK 규격 W500 × H600 × D150 개수 4P 배전(MCCB) SB-104Ca / 75A (17H) 분기차단(MCCB) SK-52 / 30A (27H) 분기차단(ELB) SOH-32 / 20A (14H)	No.8 Model : 6070-1 BCK 규격 W600 × H700 × D150 개수 4P 배전(MCCB) SB-104Ca / 50A (17H) 분기차단(MCCB) SK-53 / 30A (27H) 분기차단(ELB) SOH-32 / 20A (14H)	No.9 Model : 6070-2 BCK 규격 W600 × H700 × D150 개수 4P 배전(MCCB) SB-104Ca / 100A (17H) 분기차단(MCCB) SK-53 / 30A (27H) 분기차단(ELB) SOH-32 / 20A (14H)

기성함부



JB(콘트롤박스) 1.0T

JS(매입함) 1.6T

JDS 1.6T(본전함)

1.2T



경기도 시흥시 엠티비북로 183 2사 704호
T. 031-434- 5521~2 F. 031-434-5525
E-mail : jyt5050@hanmail.net